

목포시 '생활 속 안전' 힘 쏟는다

24만 시민 안전보험 가입
쿨링포그·쿨 루프·그늘막 등
폭염 대비 시설 설치 확대
TF팀 구성 9월까지 운영



목포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총 80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김종식 목포시장이 '생활 속 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관련 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생활 속 안전'에 방점이 찍히면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건강증진과 등 관련 부서도 부산해졌다.

목포시는 24만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이 가입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상 속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취지다.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령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된 폭염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응 시설 설치 확대된다.

시설은 크게 쿨링포그, 쿨 루프, 그늘막 등 세 가지다.

무더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쿨링포그(Cooling Fog)가 주민들이 많이

사립비 1억6000만원을 들여 장미의 거리, 옛 동목포역 인근 헬빙공원, 근대역사관 2관 주변 등 3곳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을 거쳐 2곳에 시범 운영된다.

쿨링포그는 미세 물 입자를 고압 분사하는 방식으로, 물안개처럼 옷이나 피부 등이 닿아도 젖지 않으면서 주위의 온도를 2~5℃ 낮춰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무더위쉼터(경로당)에 대한 쿨 루프(Cool Roof)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원한 지붕'을 일컫는 쿨 루프는 일종의 차열페인트로 태양열을 반사시켜 건물

의 온도를 4.5℃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방수·도장 공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미주경로당, 연동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돼 쿨 루프가 설치된다.

또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38일)으로 첫 선을 보인 그늘막은 올해 대폭 확대된다.

목포시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총 80개소에 설치된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다. 세부적으로 고정형은 파라솔 55개소, 천막형은 몽골텐트 16개소와 캐노피텐트 9개소 등이다.

폭염에 대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 의료 지원 등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 직원들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박근재 목포시안전총괄과장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쿨링포그와 쿨루프 효능에 대한 만족도를 살피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화와 밀접한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수협 위판장 제철 맞은 육젓 경매 활기

경매가 연일 상한가 행진
드럼 당 1000만원 넘어서

목포수협 위판장이 본격적인 육젓(새우젓) 시즌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 7월 들어 육젓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목포수협 육젓 경매가가 한 드럼 당(200kg)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경매에서는 한 드럼에 1619만원을 찍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지난 3일(경매일 매주 수요일) 진행된 경매에서도 평균 1400만 원대를 웃돌았다.

최성재 목포수협 판매과장은 "작년에

250억 원의 위판고를 올렸고 지난 달 3째 주 15억 1000만원, 넷째 주 15억 8000만원 등 현재까지 68억 위판고를 기록했다"면서 "육젓이 늦게 나고 빨리 끊기는 추세라 전년 대비 위판총액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육젓은 음력 6월에 잡힌 새우로 담근 것들로 새우젓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

그 이유는 음력 6월에 잡힌 새우가 제일 크고 살이 토실토실 올라 썩으면 살이 툭 터지는 맛이 있고 껍질이 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일조량이 풍부한 7월에 생산된 소금으로 염장하기 때문이다. 연중 7월에 생산된 소금은 약간 단맛이 감돌아 으뜸으로 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씨월드고속훼리, 대형 카페리 건조 착수

2만7000t급 '퀵제누비아호' 강재 절단식



목포-제주, 해남우수영-추자-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최고의 복합해상 운송기업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 1일 울산 현대미포조선공업에서 대형카페리 선박 '퀵제누비아호'의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 절단식(Steel Cutting)을 조선사인 현대미포조선공업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퀵제누비아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펀드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미포조선공업에서 건조됨에 따라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제주기점 업계 수송률 1위 선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됐다.

새로 탄생하는 퀵제누비아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 국제톤수 약 2만7000t 규모로 1300여명의 여객과 470여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수송할

수 있다. 퀵제누비아호는 기존 여객선의 개념을 탈피하여 고급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감각적인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고급스러운 객실과 대형 아트리움, 아교라 분수대, 오픈 테라스를 비롯한 영화관, 팻룸, 층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2대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편의성을 높였다.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는 "연안여객선에서 볼 수 없었던 크루즈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연안 여객선사로서 가진 모든 노하우로 고객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하게 준비 중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건조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에서 한달 살아보기 '인기 좋네'

50여팀 7개 특화프로그램 제공
미국·강원도 등 참가자 다양

최근 관광지를 찾아 현지인의 일상을 느껴보는 이른바 '한 달 살이'가 인기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행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포시는 8일 전남도 신규 사업인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1위(11개 시·군 선정)로 선정돼 이달부터 12월까지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는 목포 관내 게스트하우스와 한옥 체험마을 등 신청을 받아 14개 숙박업소 60개 객실을 선정했다.

최소 7박 이상, 최대 29박을 기준으로 2인 1박에 5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자부담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2800만 원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광주·전남지역 외에 거주하지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목포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여행작가나 파워블로거는 우대한다.

목포시 관광과에 따르면 모집규모는 50여팀 정도로 현재까지 26팀 71명이 선정됐다. 미국(김중성씨)에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진주·창원·구미시 등 경상도 권, 강원도 양양군에 이르기까지 참가자 분포도 다양하다.

참가자로 선정된 자는 SNS, 블로그, 주요 여행카페 등에 관광지 여행후기를 게시하거나 신문·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에 여행후기를 기고하면 된다.

특히 목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목포역사 바로알기, 목포 문화 예술 체험하기, 맛의 도시 목포음식 먹어보기, 유달산 탐방, 마을 해설사와 함께 느린 골목길 걷기, 세일링 요트체험, 슬로우 아일랜드 체험하기 등 7개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혜강 목포시관광기획팀장은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관광지와 갖가지 체험에 관한 관광객들이 며칠간 여행으로는 아쉬워 할 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음식 등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들이 '목포 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목포 근대역사관 제1관(옛 일본영사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소비를 하게 돼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불편·불만족 사항 등 만족도 조

사를 실시, 향후 관광정책개발·홍보·마케팅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